

한국 기독교영화제의 역사와 의미 연구

강진구 고신대 교수

대한민국은 영화제의 나라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영화제를 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영화제는 필수적인 지역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정동규 등이 2019년도에 출간한 책 <한국의 영화제>에 따르면 전국의 영화제 수는 159개에 이르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주말마다 전국 어디선가는 영화제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기독교 또한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며 기독교영화제를 개최해 왔다. 개교회 중심이 아닌 지역 단위 크기의 규모를 갖춘 최초의 기독교영화제는 영화의 도시로 알려진 부산에서 시작되었다. ‘제1회 기독교 영화제 (The 1st. Christian Film Festival)’로 명명된 이 영화제는 2001년 12월 15일부터 7일간 거제교회를 비롯한 은항교회와 온누리감리교회 등 3개 교회와 이사벨교 강당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독교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CTS가 개막식과 폐막식을 중계하는 등 기독교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으로 세미나와 신세대들을 위한 이벤트 등 제법 규모와 내용을 갖춘 기독교 영화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부산에서 열린 ‘기독교 영화제’는 연속성을 갖지 못한 채 단발 행사로 그친 바람에 아쉬움이 있었다. 대신 현재 ‘서울국제사랑영화제’로 이름을 바꾼 ‘서울기독교영화제’가 그 뒤를 이었고 2023년 현재 규모와 지속성을 갖춘 영화제는 3개로 늘어났다.

첫째,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기독교 영화제를 국제화시키면서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자 기독교 영화제의 만형 역할을 해온 대표주자이다. 장신대에서 기독교 문화를 전공한 소장파 학자들이 모인 문화선교연구원과 한국 최초의 기독교 영화 전문 상영관을 표방한 영화관 ‘필름포럼’이 중심이 되어 벌써 20회째 행사를 진행했다.

둘째, ‘한국기독교영화제’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가장 많이 연출한 김상철 감독을 중심으로 젊은 연출자들이 참여하는 공모전 성격의 영화제다. 2016년 ‘한국기독교단편영화제’로 시작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였지만, 미래의 기독교 영화 연출자를 발굴하고 기독교 영화 제작을 위한 뜻을 모은다는 취지는 변하지 않았다. 특히 영화를 통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서 문화사역의 현장으로서의 가치가 빛나고 있다.

셋째, 2019년에 시작한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기독교 영화의 범주를 뛰어넘어 다양한 색깔을 가진 신앙인들의 영화에 대한 생각을 모으는 자리이다. ‘혈오 대신 도모, 배제 대신 축제’라는 표어가 말해주듯 한국의 주류 교단들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치려는 신앙인의 사회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모두를 위한 영화제’는 기독교 신앙인이 주체자로 나서서 주제를 제기하며 영화를 선정하지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가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 또한 기독교 영화에 한정을 짓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 교계에 기독교영화제가 출현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과 그에 따른 영화제의 관심이 교회에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1996년에 시작한 부산국제영화제(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가 한국 문화계에 끼친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88서울올림픽이 한국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며 세계화의 발판이 되었던 것처럼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인의 영화를 보는 안목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영화계가 주목하는 한국영화를 탄생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무엇보다도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은 전국에 영화제 개최의 붐을 일으켰다. 1997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000년 전주국제영화제, 2002년 미장센 단편영화제, 2005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의 다양한 영화제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문화의 새로운 흐름에 민감한 한국 교회가 영화제 개최 열기에 무심할 수는 없었다. 한국의 교회와 문헌선교 연구자들은 영상문화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세대를 교회 안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했고 영화제는 문화선교의 전략으로 활용하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기독교 영화제는 디지털 영상 미디어의 시대 속에서 교회 내외적으로 결코 작지 않은 의미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첫째, 신앙인들에게는 기독교 영화를 한 곳에서 모여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반 상영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기독교 영화를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과 함께 보는 즐거움은 거룩한 오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기독교 영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다.

둘째, 기독교 영화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제작에 대한 열의를 북돋울 수 있는 현장이다. 기독교 영화가 꾸준히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독교 영화에 관심있는 투자자와 교회 관계자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기독교 영화에 대한 정보나 동향을 들을 수 있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 실제 제작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기독교 영화 제작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는 일은 기독교영화제에서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젊은 기독교 영화인들이 만든 영화를 볼 수 있고 교회와 동역자들로부터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기독교영화제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셋째, 사회와 소통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기독교 영화제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교회에 대해 더욱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기독교영화제는 성경의 가치를 빛내는 기독교인을 영화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왜곡된 이미지를 통해 원색적 재미의 수단으로 전락한 기독교인이 아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 인지를 보여주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 기독교인’을 만날 수 있는 자리란 점에서 기독교 영화제는 사회와 소통하며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문화사역의 현장이 아닐 수 없다.

2023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천항 앞바다에 있는 섬 고대도에서는 ‘제2회 귀출라프 국

제 영화제'가 열렸었다.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칼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 1803~1851)가 고대도에 20일간 머물며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최초로 서양 감자를 파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등 선교 활동을 한 역사를 기념하여 열린 영화제였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기독교영화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기독교 영화제는 한국 교회에 숙제를 남기고 있다. 교회 성도들이 외면하는 기독교영화제란 의미 없듯이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세계를 대표하는 기독교영화제 또한 한국에서 열릴 수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전국에서 몰려든 관객 때문이었다. 영화관을 드나들 때마다 어깨를 부딪칠 만큼 사람들로 가득한 부산국제영화제는 축제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서로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사는 곳이 다른 한국 기독교인이 함께 어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축제가 있는가? 교회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축제를 만들 수 있다.